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4월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 연장과 9일기도 요청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의료진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9일기도(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당 내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 때문에 재의 수요일부터 중단된 미사와 더불어 신자들이 통상적인 부활 판공 성사를 볼 수 없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께서서는 우리 교구 신자들이 부활 대축일을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되면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적당한 때에 예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1.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고해성사 예식』 33항) 일괄 사죄 때 고백하지 못한 중죄의 개별 고백은 가능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전례 규정에 의하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미사 중에 말씀 전례, 강론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서 안 되고, 반드시 미사와는 분리된 참회 예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모일 수 없는 관계로 미사 전에 별도의 참회 예절을 거행하는 가운데 일괄 사죄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요약문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이들은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 상태에 처해 있지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에 영적으로 결합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깊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을 실천할 때, 전대사를 받게 된다. 또는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게 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 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기꺼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 [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